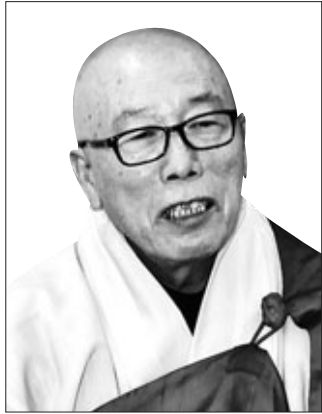


# “태고종 발전 위한 전문가 기구 만들겠다”

###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8대 운영기조 밝혀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 악성부채 해결 등 종단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고종발전위원회’를 2월 10일경에 발족한다.

도산 스님은 “태고종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종단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사, 정치가, 학자 등 외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통해 태고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수 없이 종법에 따라 승적을 말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태고종은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명이 동참하는 인천아시아게임 성공개최 기원 수륙대제 봉행도 개최할 뜻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도산 스님은 지방교구에 중무 행정을 이양하는 것과 승려노후복지 대책 마련에

**전문가 60명 참여 발전위**  
**2월 10일 발족...현안 논의**  
**3월까지 승려분한신고 실시**  
**승풍진작, 재정 투명 추진**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전라도 등 일부 지방 교구를 제외하면 현재 중무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교구별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방침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승려노후복지 대책 마련 역시 도산 스님은 “제주도에 태고복지원을 만들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총무원장이 되고 최근에 확인해 보니 제주도 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별도 법인 설립안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산 스님은 “지난해 12월 선암사에서 발표한 ‘태고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한 달에 꼭 한 번이라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수행풍토를 쇄신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 “승가교육개혁 안착에 역량 집중”

### 조계종 교육원 7개 분야 사업 제시

2급 승가고시에 ‘설법’ 분야 개설  
염불교육 강화... 대회 개최 예정



승가교육개혁은 지난 5년 간 조계종의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였다. 이제 5년차를 맞는 승가교육개혁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은 1월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현응 스님은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현응 스님은 “제 임기는 10월 말에 마무리되지만 교육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올해에도 7가지 분야의 교육 개혁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교육에서 있어서는 지난해 ‘청소년, 단기출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의제(복식)이 제정된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청년출가학교’는 올해부터 신청 사찰과 단체에 위탁 운영한다.

이와 함께 30%에 이르는 행자 중도 포기자들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출가상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지난해 320명이 행자로 입문했지만 이중 30%인 120명이 출가를 포기했다”면서 “출가상담사들이 교구본사별로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행자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을 해소해 중도 탈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모든 승가대학이 표준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본교육 부문은 안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를 정착화 하기 위한 지원들이 이뤄진다. 또한 한글염불교육을 활성화해 한글의

레를 아래에서부터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매년 ‘학인염불시연대회’ (가칭)을 열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4급 승가고시에 ‘불교상용어’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승가고시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한 하다. 당장 올해 3월 치르는 4급 승가고시에서는 일상 수행 평가 점수가 반영되며 3급 이상 법계를 위한 승가고시에는 한국 사회에서 전법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2급 승가고시에는 수행의 한 축인 ‘설법’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수좌, 교학자, 전법 전문 스님 등으로 심사·면접 위원회를 구성해 수행자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은 논의의 거쳐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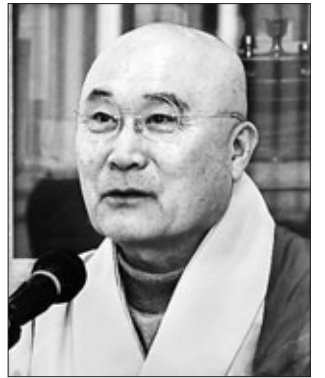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교육원은 △ ‘청소년 및 단기 출가용’ 교재 △역대 승가고시 기출문제 자료집 △ 불교영어 중급 1,2 및 임원 제작 △2013년도 교육원 통계자료집 △2014년도 불교 교학자 인물정보 등의 교재와 교육자료집 발간도 추진한다.

신종일 기자

# “지역 중심 전법 토대 구축 노력”

### 조계종 포교원 불교 내실 다지는 포교정책 발표

수요자 중심 포교 정책 개발  
지역신도회 활성화 역량 집중



조계종 포교원이 ‘지역전법 중심토대 구축’을 기치로 새해 포교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전법지원 발굴 등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에는 지역전법이란 포교원 움직임에 발맞춰 지역별 간담회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는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불교 여성개발원 임원진도 참석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은 “불교는 사회적으로 갈등해소와 국민화합의 조정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향의 전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지역중심 전법토대 구축을 모색하고 함께 6가지 전략과제를 실현해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이 공개한 사업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별 전법지원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이다. 지역 유명인사와의 토크법회 등 지역활동가를 활용한 포교사업이 진행된다. 다양한 지역 포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구본사와 교구신도회, 지역의 불교계 수탁·운영 복지시설, 포교사단 지단, 지역 신행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포교원은 2014년 4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전법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보통 한 권역 당 20~30개 단체가 활동하는데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며 “포교 취약

지역에서 지역 단체 역량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지난해 진행한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연구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고령화 시대에 맞춘 실버상담 프로그램, 다문화가족과 농어촌 포교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시대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모바일 및 심성프로그램에 주안을 둔데 이어 올해는 명상과 상담을 통해 사회 각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또 온정불교문화진흥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나라다 축제도 올해부터 주관해 종단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신도봉계제도도 사찰신도제도와 연계할 방침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 성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긴 목표를 두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올해 포교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보다 20여년의 포교 성과를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영역을 점검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선학원 정체성 확립... 한국불교 발전 방안 모색

###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기념관 건립 등 계획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이 한국불교의 정체성 재확립과 이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

(재)선학원은 1월 22일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신년 계획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올해 선학원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선학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한국근대 불교문화기념관’ 건립 불사다. 총64억 원이 투입되는 기념관은 대지 814.10㎡(246.27평)에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은 전통 목조 건축으로 지어지며 지하에는 현대적 구조로 지어진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사진)은 기념관에 대해 “선학원이 태동한 자리에 세워지는 기념

관은 선학원 설립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재단 행정·교육·복지의 중심이자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이뤄진다. 선학원이 올해를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100주년 기념 <선학원사(禪學院史)>이 대표적이다. 조선말기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불교의 역사를 총망라할 통사(通史) 개념의 <선학원사>는 근현대 불교사의 객관적 이해와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화 60년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도 눈길을 끈다. 1954년 8월 24일부터 25일, 9월 29일 열린 제1, 2차 전국비구승대회를 기념해 열리



**정화 60년 학술세미나 등**  
**‘뿌리 찾기’ 사업 잇달아**  
**법인법은 반대 입장 교수**

는 세미나는 정화 주체로서 정화 이념과 한국 불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선학원은 지난해부터 조계종과 연계해 대립해 온 법인법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법인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와 전국 분원장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대화의 여지는 있지만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별도의 기초선원과 수계도량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독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면서 “6월 30일까지 등록을 안하면 조계종의 재제 조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당장 법인 분원들에 있는 후학들의 수계와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

## 종관유식 승가대학원 신입생

본원(本院)은 승가대학을 졸업한 학인스님들이 종관·유식을 바탕으로 보다 깊은 불교학(佛敎學) 연찬(研鑽)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4년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원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사진** 상주강사: 고불총림 울주 해권스님, 승가대학원장 원철스님, 승가대학원감 정현스님  
외래강사: 법산스님(전, 동국대불교대학원장), 진우스님(고불총림백양사주지),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총장대행) 외
-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비구니
- 입학정원** 10명(상주, 통학)
- 모집기간** 2014년 2월 28일(금)까지
-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 1부  
승적증명서 ..... 1부  
사진(반명함) ..... 2매  
승려증 ..... 사본 1부  
건강진단서 ..... 1부
- 문의처** 전화 061)392-7502(종무소) 팩스 061)392-2081

종관유식 승가대학원장 원 철

## 백양사 고불율원 신입생

고불총림 고불율원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하여 근대 만암, 서옹스님에 이르는 계승정신으로 울매이 깃든 청류암에서 30년간 백양강원을 주석한 울주 동성해권스님의 古經操心(고경조심), 小慾知足(소욕지족), 持戒淸淨(지계청정)의 원훈이래 부처님의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 용사자격**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및 비구스님
- 모집인원** 전문과정 0명, 연구과정 0명
- 모집기간** 2014년 2월 28일(금)까지
- 교과목** 사분율, 비니관요, 범양경 외
-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 1부  
사진(반명함) ..... 2매  
승려증 ..... 사본 1부  
건강진단서 ..... 1부
- 원서교부·접수** 백양사 고불율원(청류암) : 061-392-7506

고불율원 울주 해권  
율원장 법장

